



경제동향



요약

고용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생산 제조업지수/출하·재고지수/서비스업 생산지수

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
물가 소비자물가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

장윤선 연구원 changyuns@si.re.kr

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/주택월세가격

금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설·부도/신용보증

수출입 수출입액/품목별 수출입/국가별 수출입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

최윤진 연구원 erdene@si.re.kr

경제동향 | 요약



고용

- 서울의 9월 취업자는 51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(0.4%) 증가
- 산업별 취업자는 건설업(9.6%)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크게 증가
- 임금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0.4%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2.2% 감소
- 고용률은 60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2%p 상승, 실업률은 4.2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 상승



생산

- 서울의 9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7.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7% 증가
- 9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.6% 감소, 재고지수는 20.6% 증가하여 경기 둔화/하강 국면을 시사
- 2016년 3/4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5.5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.0% 증가



소비

-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4,14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.9%로 크게 증가하였으며, 전국(7조 3,596억 원)의 32.8%를 차지
- 2016년 3/4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09.9로 전년 동 분기 대비 5.0% 증가



물가

-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.9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3% 상승
- 여름 폭염과 추석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신선식품물가지수(17.6%)가 크게 상승했으며, 서비스물가지수(2.1%), 생활물가지수(0.3%), 상품물가지수(0.1%)도 모두 상승



부동산

-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31% 상승한 102.0 기록
-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17% 상승한 102.0 기록
- 서울의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2로 준전세의 상승폭이 확대되고, 월세와 준월세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전월 대비 0.01% 하락



금융

- 서울의 9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60조 4,641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4% 증가
- 서울의 9월 가계대출 잔액은 257조 8,48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6% 증가
- 서울의 9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6조 1,80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4,908억 원(0.9%) 증가,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.4%
- 서울의 9월 신설법인 수는 2,301개로 전월 대비 13.6% 감소, 부도법인 수는 14개로 전월보다 4개 증가
- 서울의 9월 보증지원금액은 852.8억 원, 보증지원건수는 3,707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1.6%, 0.4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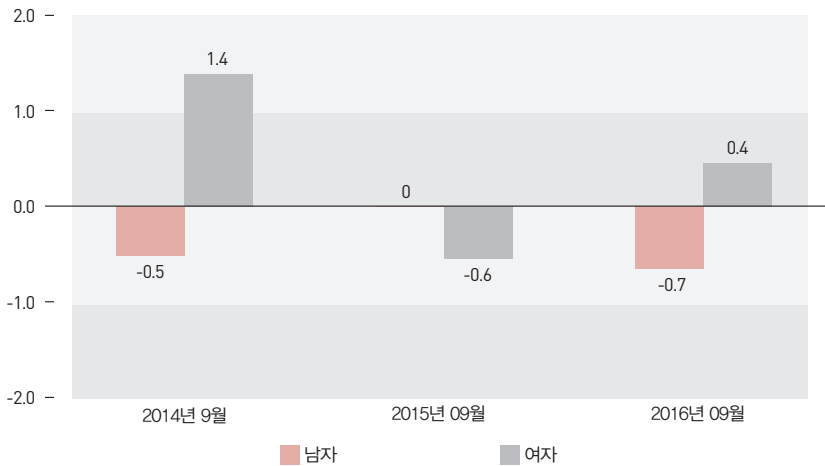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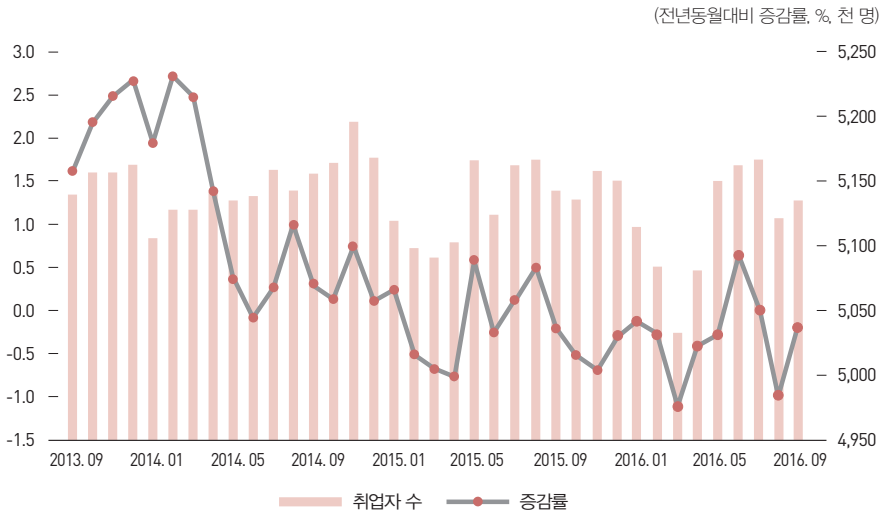
수출입

- 서울의 9월 수출액은 42.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4.3% 감소,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- 서울의 9월 수입액은 109.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.9% 감소, 품목별로는 원유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
취업자

서울의 9월 취업자 수는 513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2% 감소

- 서울의 9월 취업자는 513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(-0.2%)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(-0.7%) 감소, 여자는 229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(0.4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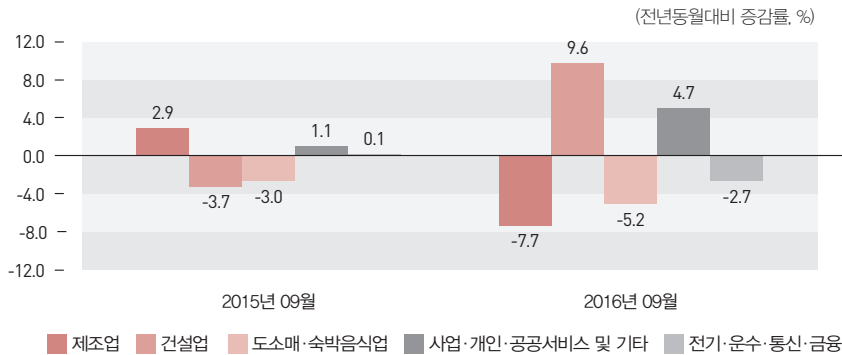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산업별 취업자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과 제조업에서 감소한 반면, 건설업은 증가

-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 7만 4천 명(-5.2%), 제조업 3만 9천 명(-7.7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2만 2천 명(-2.7%)이 감소한 반면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9만 7천 명(4.7%), 건설업 3만 1천 명(9.6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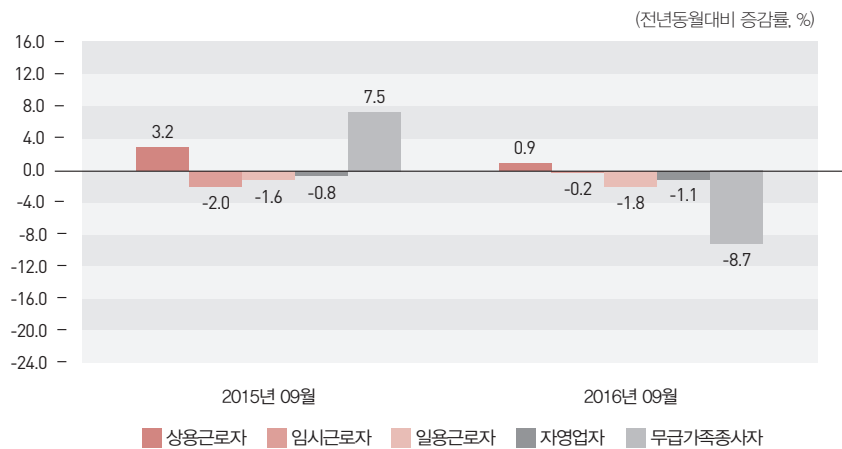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

서울은 9월에 임금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감소

-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 명(0.4%) 증가,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 명(-2.2%) 감소
-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만 3천 명(0.9%) 증가한 반면, 임시근로자는 3천 명(-0.2%), 일용근로자는 6천 명(-1.8%) 감소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 1천 명(-1.1%),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4천 명(-8.7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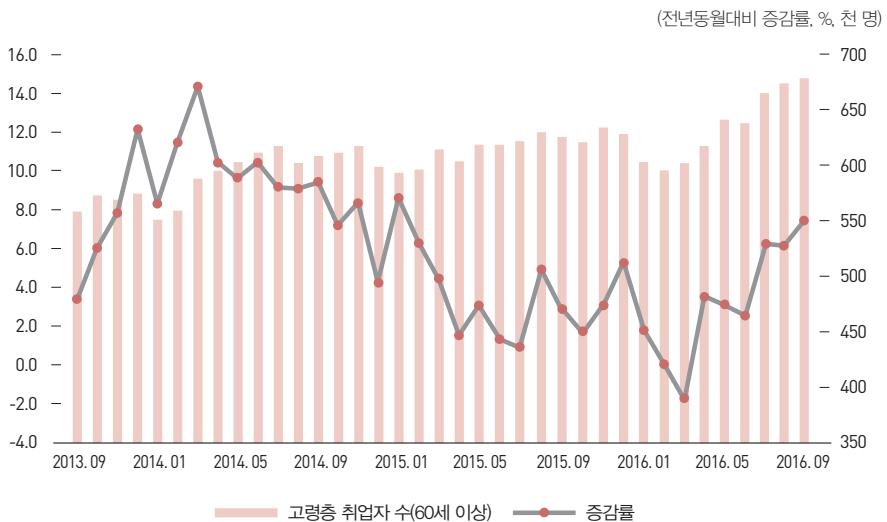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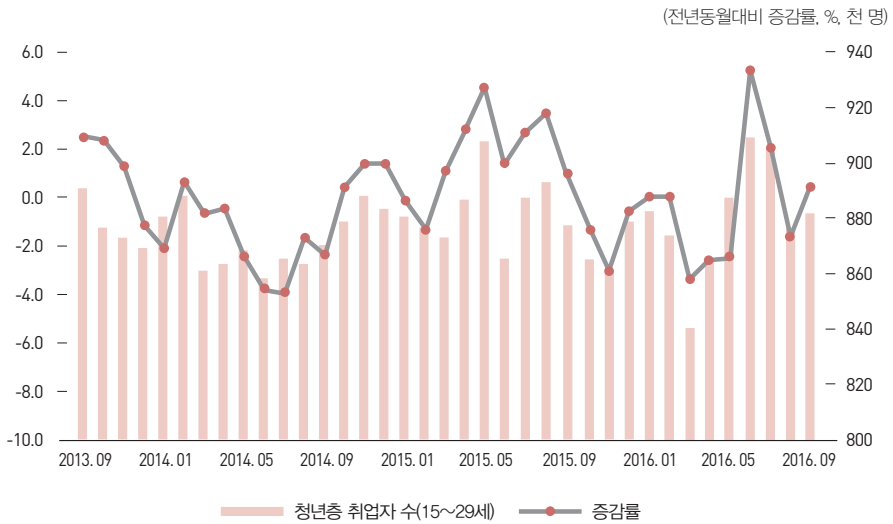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

서울의 9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 수와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

- 서울의 9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 수는 88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4% 증가
- 서울의 9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수는 6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.6% 증가
- 올해 6월부터 고령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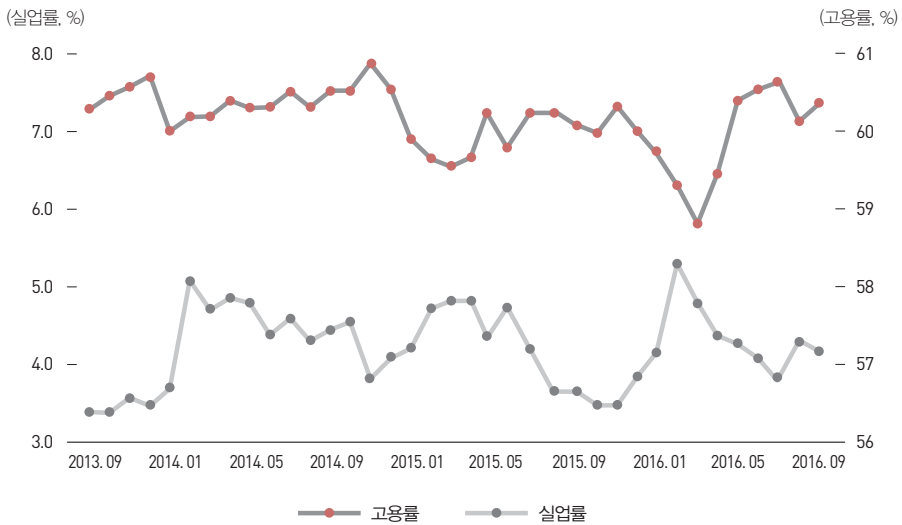
고용률 및 실업률

서울의 9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, 전국 대비 낮은 수준

- 서울의 9월 고용률은 60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2%p 상승했으나 전국(61.0%)보다는 낮은 수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69.8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, 여자는 51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5%p 상승

서울의 9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, 전국 대비 높은 수준

- 서울의 9월 실업자는 2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(9.3%) 증가
- 실업률은 4.2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 상승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4%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상승, 여자는 4.0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 상승
- 2016년 9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4.1%)에 비하여 0.7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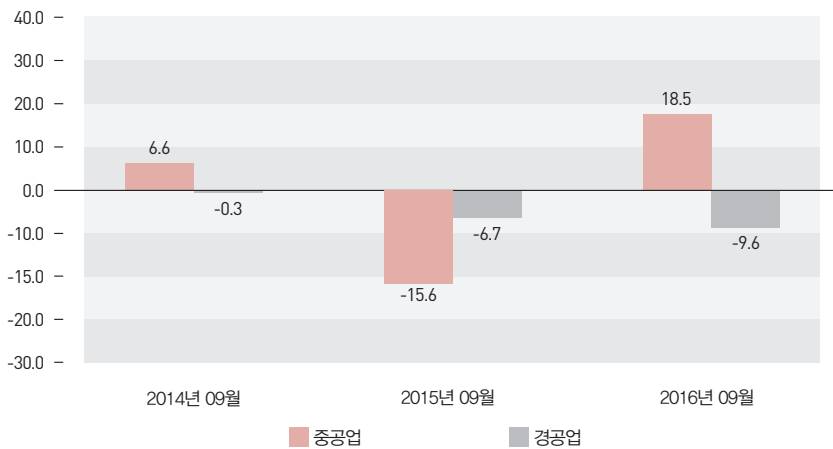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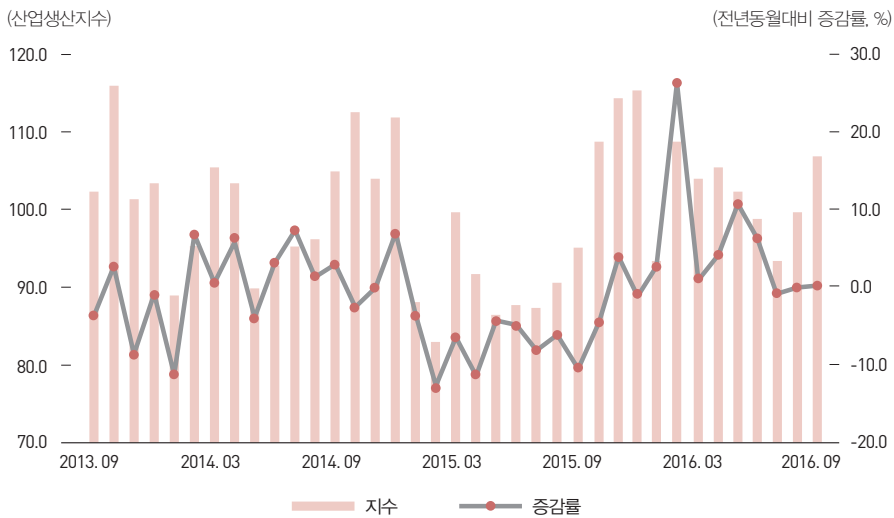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생산

서울의 9월 제조업생산지수는 0.7% 증가

- 서울의 9월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7% 증가
- 전년 동월 대비 중공업 부문은 18.5%로 크게 증가한 반면, 경공업은 9.6% 감소
-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비금속광물(293.1%), 가죽 및 신발(59.7%) 등은 증가한 반면, 고무 및 플라스틱(-42.0%), 섬유제품(-15.2%) 등은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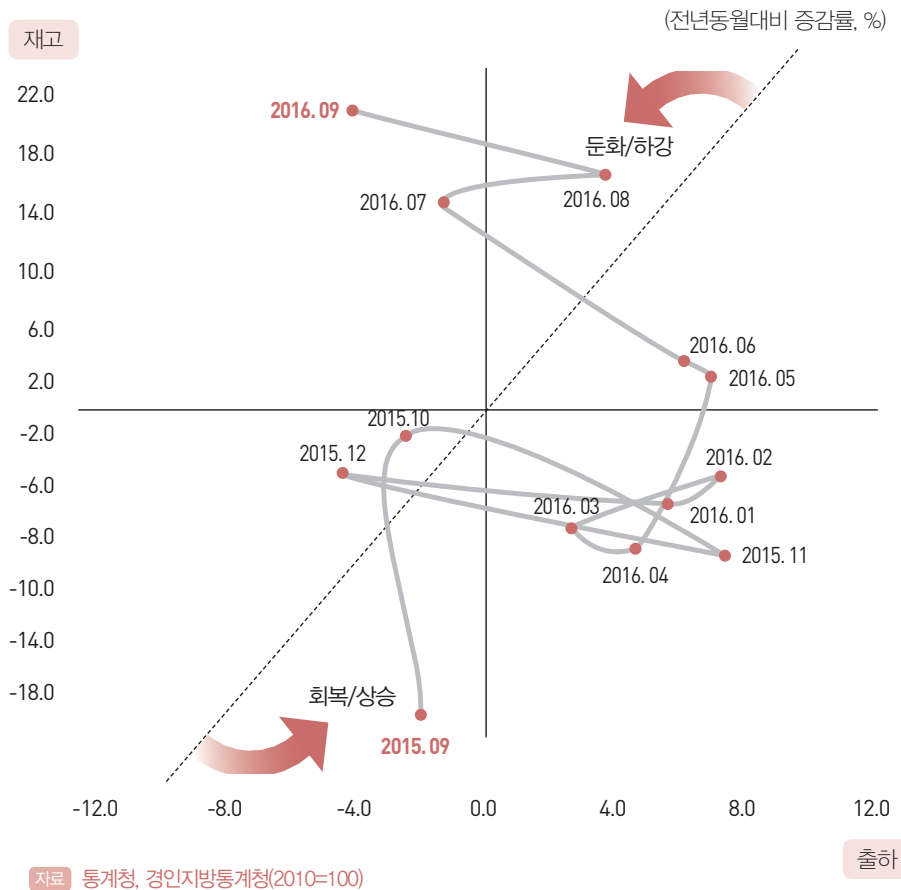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출하·재고 순환

서울의 9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3.6% 감소, 재고지수는 20.6% 증가하여 경기 둔화/하강 국면을 시사

- 서울의 9월 출하지수는 110.8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3.6% 감소
- 서울의 9월 재고지수는 157.8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20.6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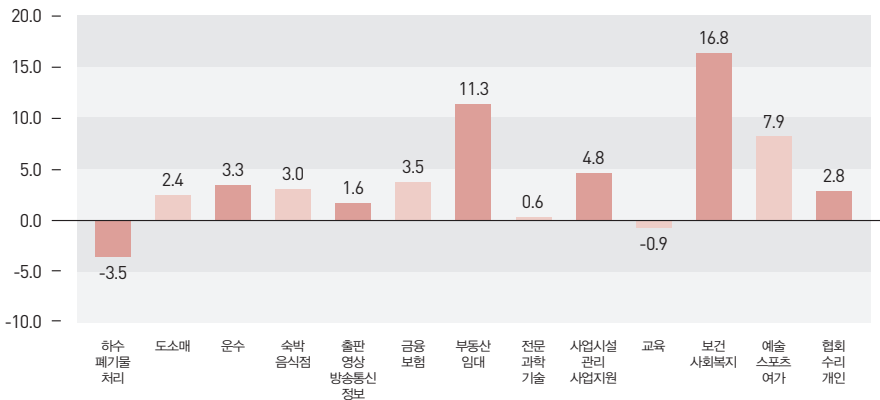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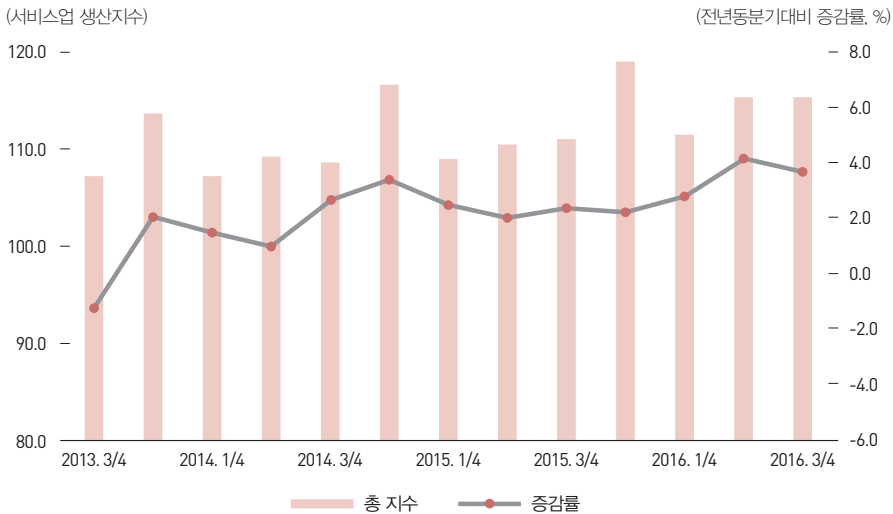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〉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서비스업·생산

서울의 2016년 3/4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5.5(2010=100)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.0% 증가

- 서울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13년 4/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가세를 보임
- 부문별로 보면 전년 동 분기 대비 보건·사회복지(16.8%), 부동산·임대(11.3%) 등은 크게 증가한 반면, 하수·폐기물처리(-3.5%), 교육(-0.9%)은 감소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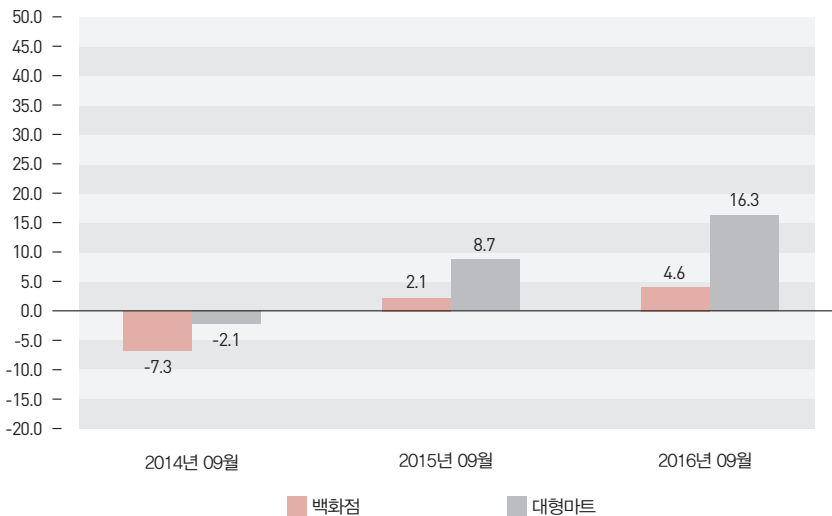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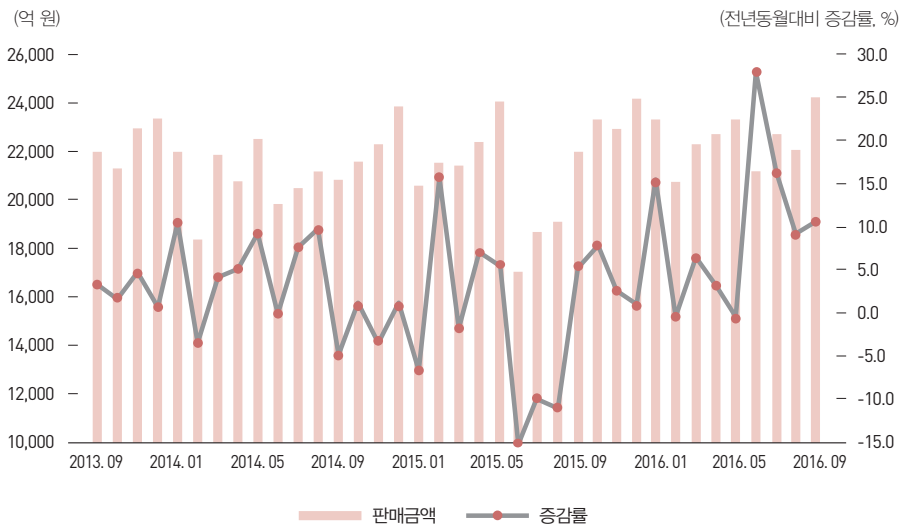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비스업 생산 추이 및 증감률

경제동향 | 소비

소비

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0.9% 증가

-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4,141억 원으로 전국(7조 3,596억 원)의 32.8%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0.9% 증가
- 9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59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6% 증가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3,54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.3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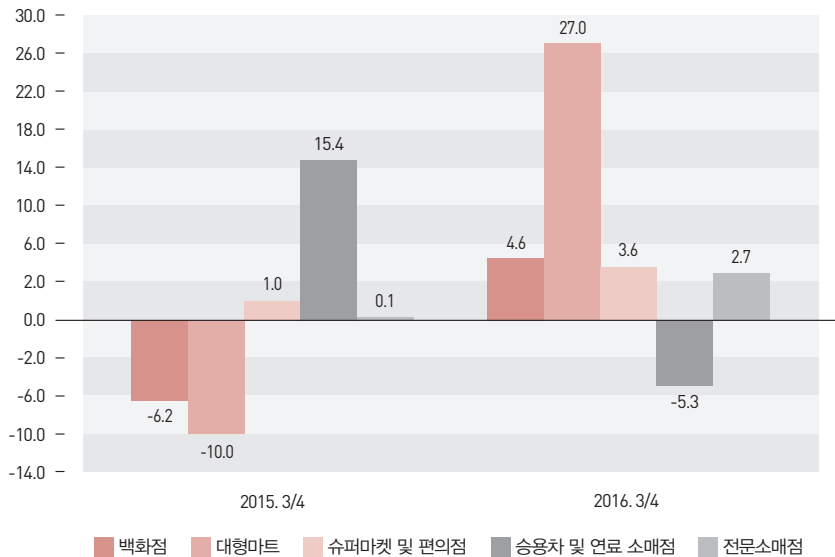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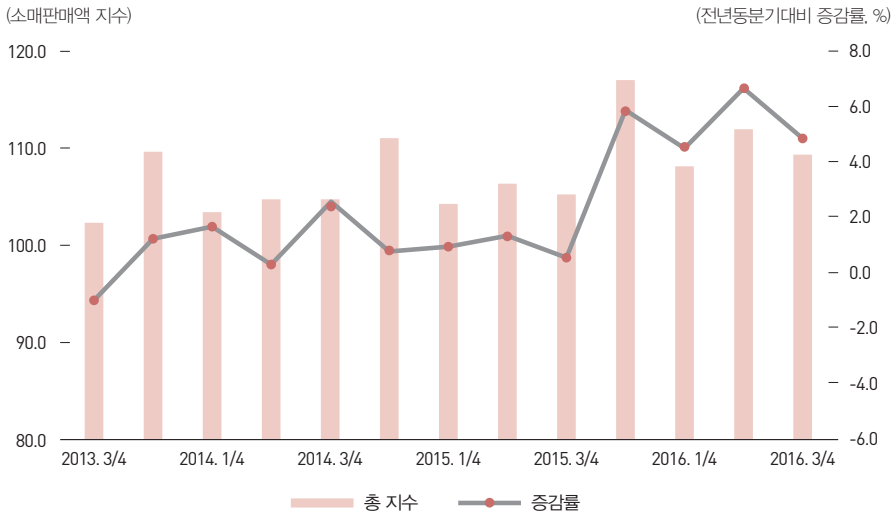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서울의 2016년 3/4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09.9로 전년 동 분기 대비 5.0% 증가

- 서울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2013년 4/4분기 이후로 전년 동 분기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
-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(-5.3%)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으며, 특히 대형마트(27.0%)에서 큰 증가율을 보임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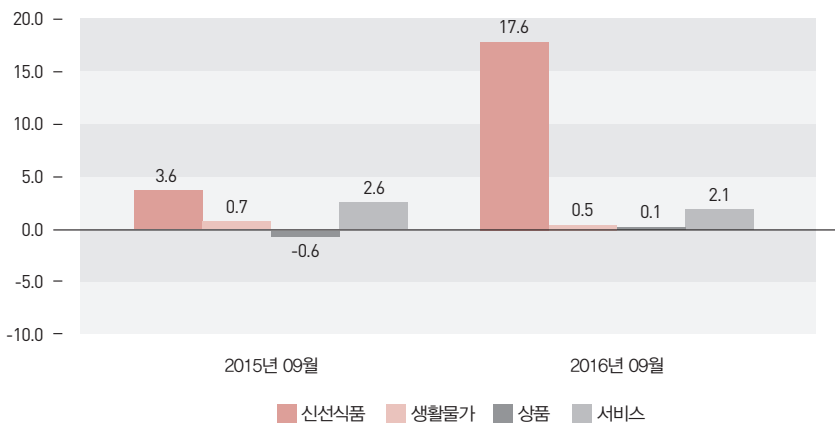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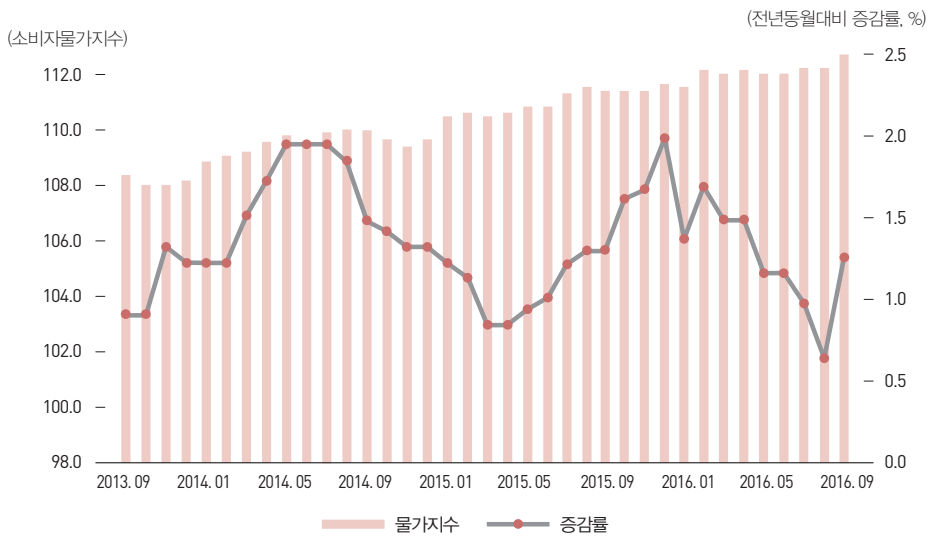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소매판매액 지수 추이 및 증감률

경제동향 | 물가

물가

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.3% 상승

- 9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.9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3% 상승
-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신선식품물가지수(17.6%), 서비스물가지수(2.1%), 생활물가지수(0.3%), 상품물가지수(0.1%) 모두 상승
- 여름 폭염과 추석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신선식품물가지수가 높게 나타남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주택매매가격

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¹¹⁴는 전월 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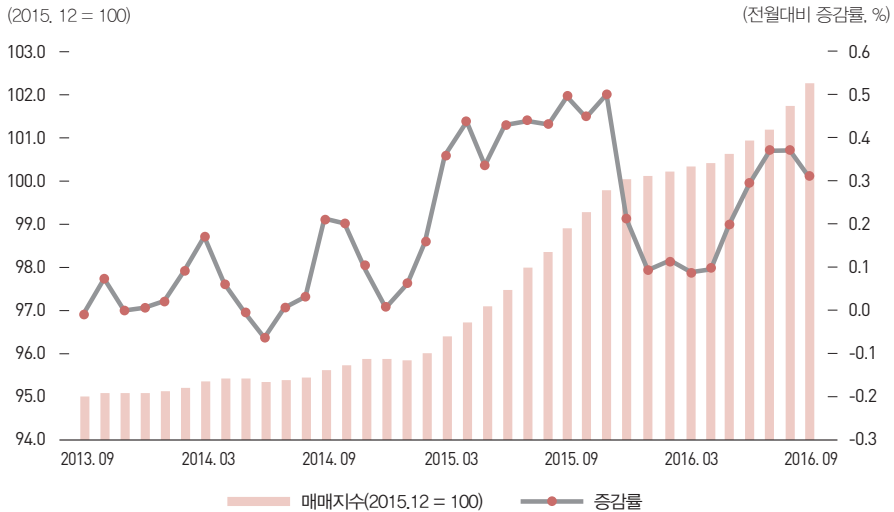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2.0으로 전월 대비 0.31% 상승. 한강이남지역(0.37%)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 및 성공적인 분양과 강남지역의 개발 호재로 상승세 지속. 한강이북지역(0.24%)은 신분당선 연장 호재와 재건축단지 투자수요로 상승세 지속
 - 주요 상승지역: 강남구(0.59%), 서초구(0.56%), 양천구(0.48%)

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(2013.3→2015.12) 변경

서울의 9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

-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¹¹⁵(1,870만 원)은 전월 대비 1.58% 상승, 거래건수(10,898건)는 9.6% 감소
- 강남구(2.91%)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.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구(1,115건), 송파구(708건), 강동구(675건) 순임

주 부동산114



자료 KB국민은행

〈그림〉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수도권과 5개 광역시는 상승세 지속, 기타 지방은 상승 전환

- 전국의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.8로 전월 대비 0.14% 상승. 낮은 기준금리(1.25%)와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에도 신규 분양시장 호황으로 상승세 지속. 수도권(0.23%)과 5개 광역시(0.04%)는 3개월 연속 상승하고, 기타 지방(0.02%)은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

주택전세가격

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지수[■]는 전월 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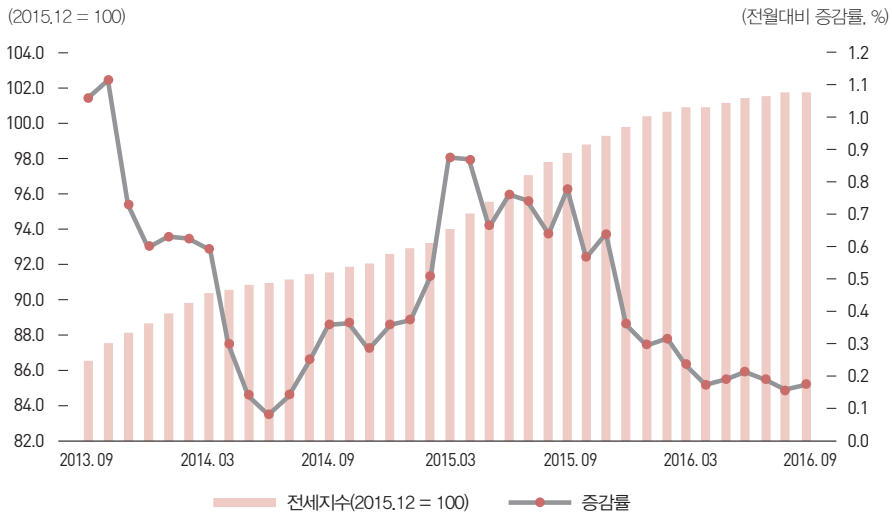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2.0으로 전월 대비 0.17% 상승. 한강이남지역(0.08%)은 위례 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물량 영향으로 낮은 상승세 유지. 한강이북지역(0.26%)은 재개발 이주 수요와 대학생 임차수요가 늘면서 상승폭 확대
- 주요 상승지역: 동대문구(0.39%), 서대문구(0.36%), 마포구(0.34%)

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(2013.3-2015.12) 변경

서울의 9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격[■](1,294만 원)은 전월 대비 0.6% 상승, 거래건수(11,043건)는 7.8% 증가
- 서대문구(2.01%) 지역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. 거래건수는 노원구(884건), 송파구(872건), 강서구(814건) 순임

주 부동산114



자료 KB국민은행

〈그림〉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수도권과 5개 광역시는 상승세 지속, 기타 지방은 상승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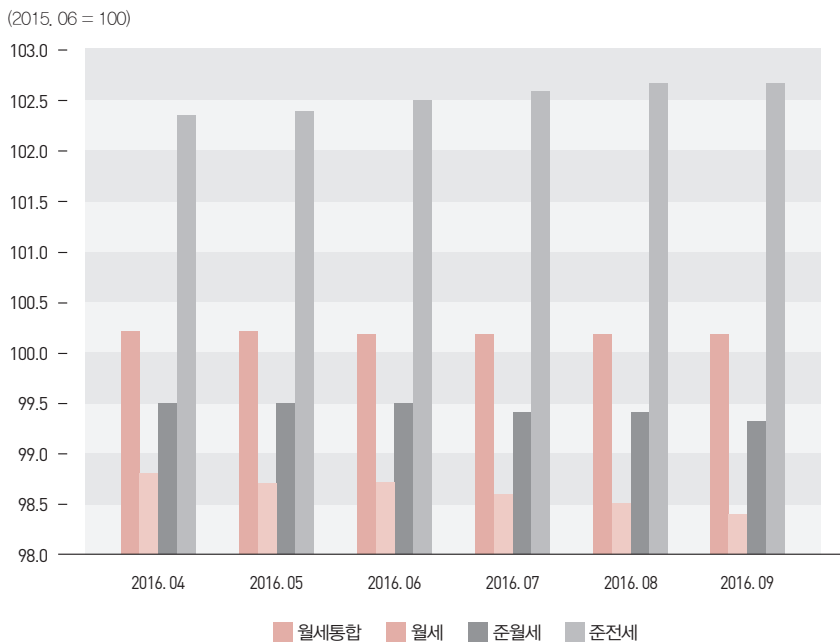
- 전국의 9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10% 상승한 101.1을 기록. 저금리 기조와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으로 상승세 지속. 수도권(0.15%)과 5개 광역시(0.04%)는 상승폭 유지, 기타 지방(0.03%)은 상승폭 확대

주택월세가격

서울의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

- 서울의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2로 전월 대비 0.01% 하락. '준전세'(0.06%)의 상승폭이 확대되고, '월세'(-0.07%)와 '준월세'(-0.04%)는 하락폭이 축소되어 월세통합은 전월 대비 하락폭 감소
- 한강이남지역(-0.06%)은 전세매물 부족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. 한강이북지역(0.00%)은 직장인 수요의 영향으로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종로구, 마포구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연립·다세대와 단독주택이 상승 전환되며 전월 하락에서 보합 전환

주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이면 '월세', 보증금이 전세금의 60% 초과하면 '준전세', 월세와 준전세 중간영역의 월세는 '준월세'로 구분



자료 한국감정원

〈그림〉 서울시 월세통합가격지수 추이

전국의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

- 전국의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1로 전월 대비 0.02% 하락. '준전세'(0.04%)는 상승폭이 늘었고, '월세'(-0.05%)와 준월세(-0.03%)는 하락폭 축소되어 월세통합은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

경제동향 | 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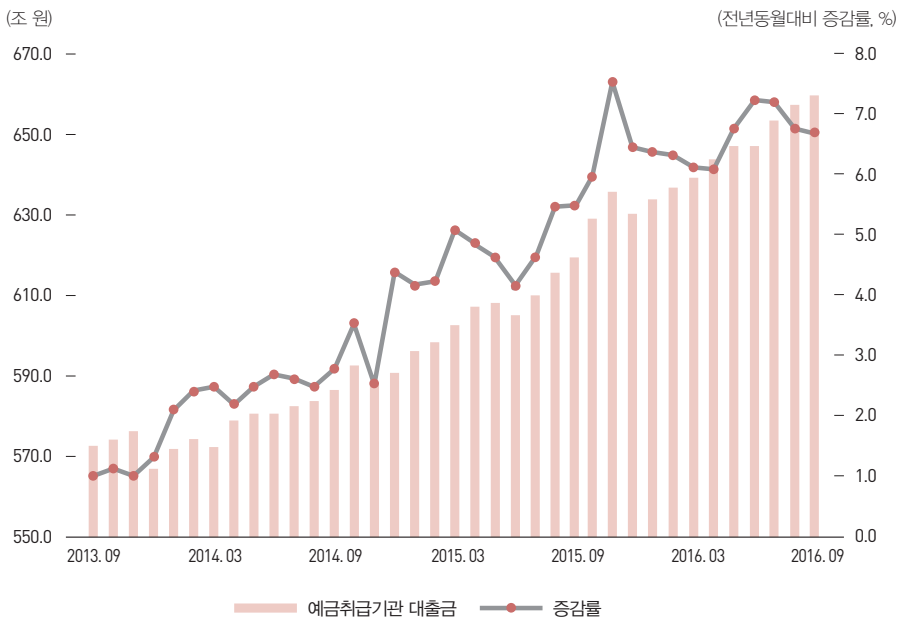
가계대출

9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- 전체 대출금 잔액(660조 4,641억 원)은 전월 대비 0.4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6.7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545조 2,359억 원)과 비예금은행(115조 2,282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4%, 0.5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.7%, 11.5% 증가

9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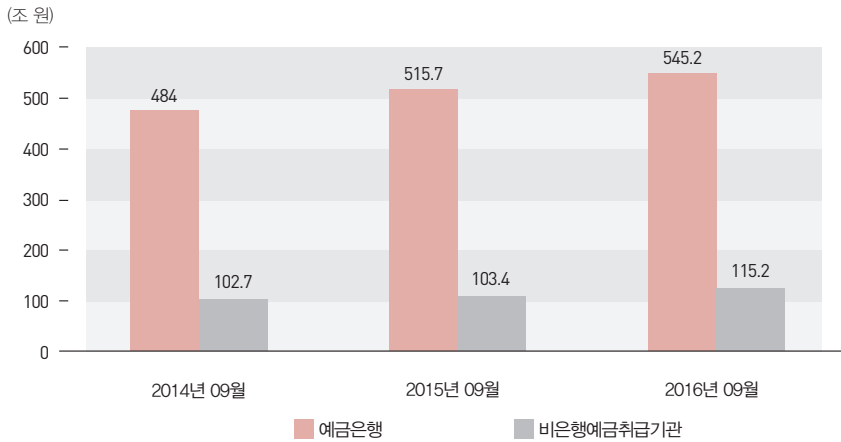
- 전체 대출금 잔액(1,868조 741억 원)은 전월 대비 0.7%, 전년 동월 대비 9.1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1,414조 2,320억 원)과 비예금은행(453조 8,421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5%, 1.2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.6%, 14.0% 증가



주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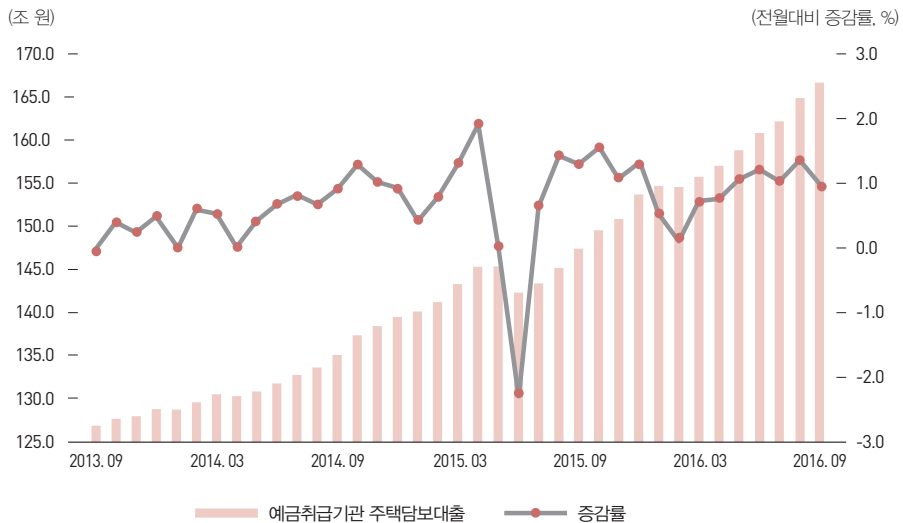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9월 중 서울의 가계대출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모두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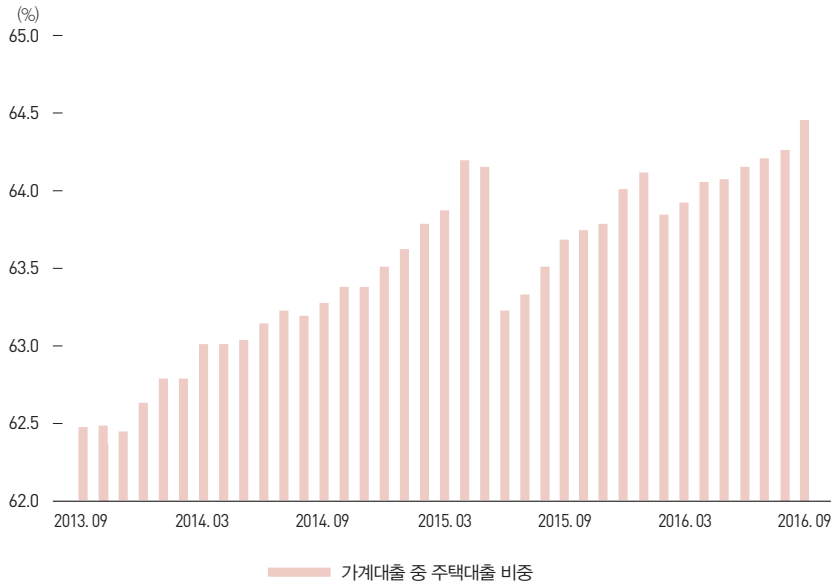
-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(257조 8,480억 원)은 전월(256조 3,644억 원) 대비 0.6% 증가
- 그 중 주택담보대출(166조 1,804억 원)은 전월(164조 6,896억 원) 대비 1조 4,908억 원(0.9%)이 증가하였고,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.4%



주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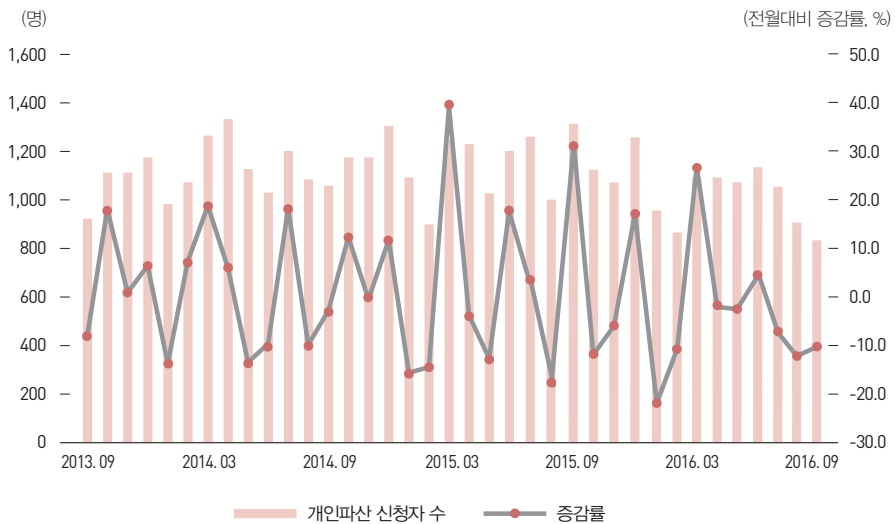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9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9월 개인파산 신청자(836명)는 전월(928명) 대비 9.9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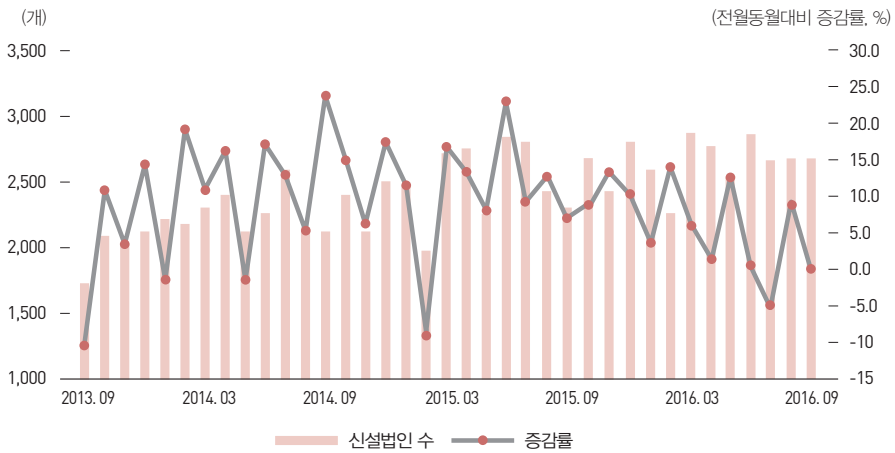
자료 대법원

〈그림〉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신설법인

서울의 9월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301개로 전월 대비 13.6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0.6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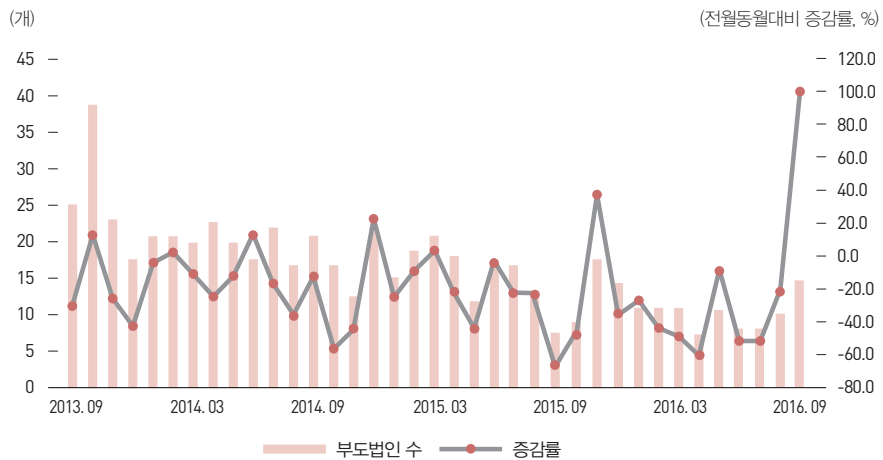


자료 중소기업청

〈그림〉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서울의 9월 부도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부도법인 수는 14개로 전월(10개) 대비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100.0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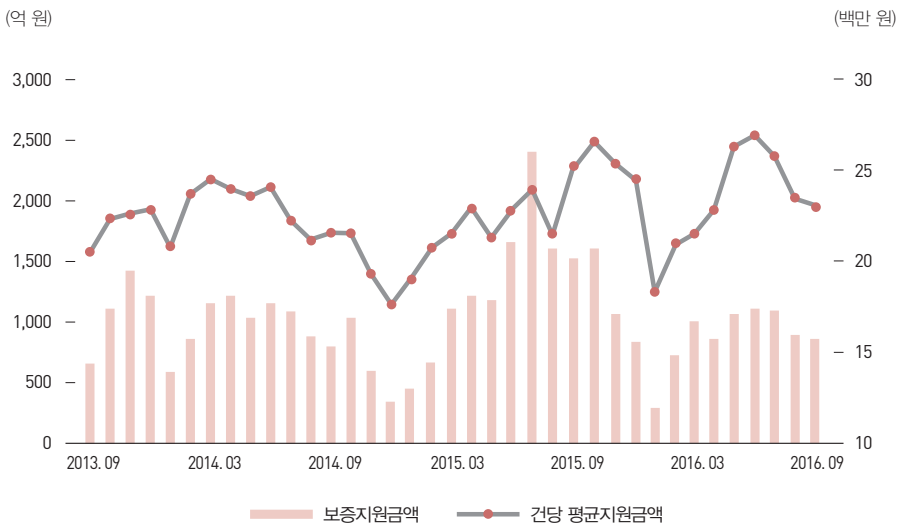
자료 금융결제원

〈그림〉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신용보증

서울의 9월 보증지원금액, 보증건수, 건당 평균지원금액 모두 감소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9월 중 852.8억 원 / 3,707건
- 보증지원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전월 대비 1.6% 감소, 0.4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4.6%, 40.1% 감소
- 건당 평균지원금액(2,300만 원)은 전월 대비 1.2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7.6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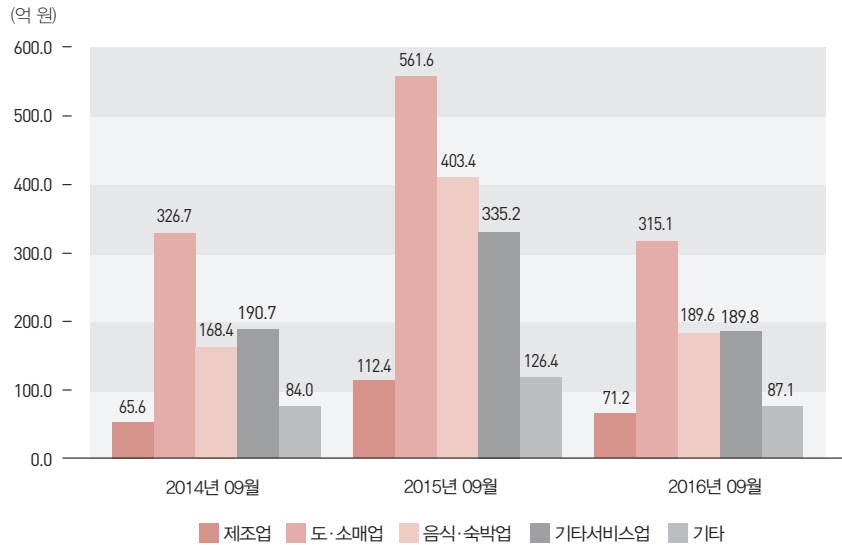


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서울시 신용보증 지원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 추이

전 업종에서 전년 동월 대비 보증지원금액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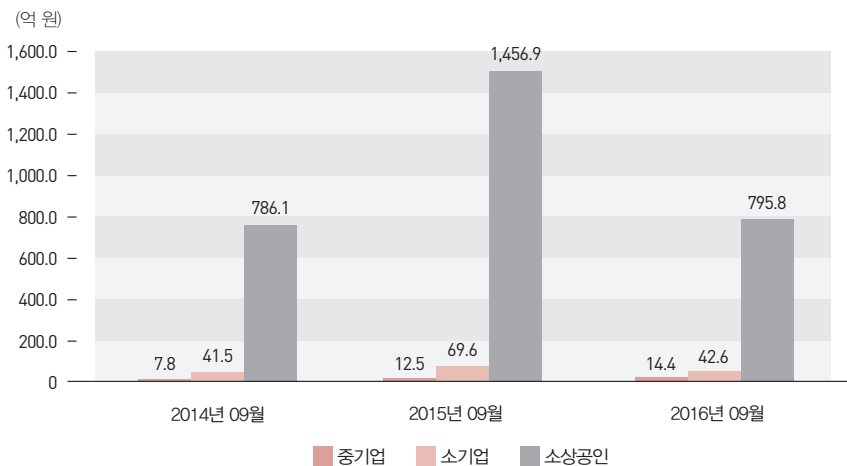
- 신용보증공급 비중은 금액 기준 도·소매업(36.9%), 기타서비스업(22.3%), 음식·숙박업(22.2%), 건수 기준 도·소매업(34.7%), 기타서비스업(27.3%), 음식·숙박업(22.2%) 순임
- 도·소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315.1억 원으로 전월 대비 2.4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43.9% 감소. 보증지원건수는 1,285건으로 전월 대비 3.9% 감소
- 기타서비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189.8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3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43.4% 감소. 보증지원건수는 1,013건으로 전월 대비 2.2% 감소
- 음식·숙박업(189.6억 원), 제조업(71.2억 원)의 보증지원금액이 전월 동월 대비 각각 53.0%, 36.7% 감소



〈그림〉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은 줄고 중기업 보증지원은 증가

- 소상공인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2.4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45.4% 감소한 795.8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93.3%를 차지.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3,621건으로 전월 대비 1.0% 감소
- 소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0.0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38.8% 감소한 42.6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5.0%를 차지. 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75건으로 전월 대비 17.2% 감소
- 중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256.6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14.8% 증가한 14.4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1.7%를 차지.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11건으로 전월 대비 450.0% 증가



〈그림〉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경제동향 | 수출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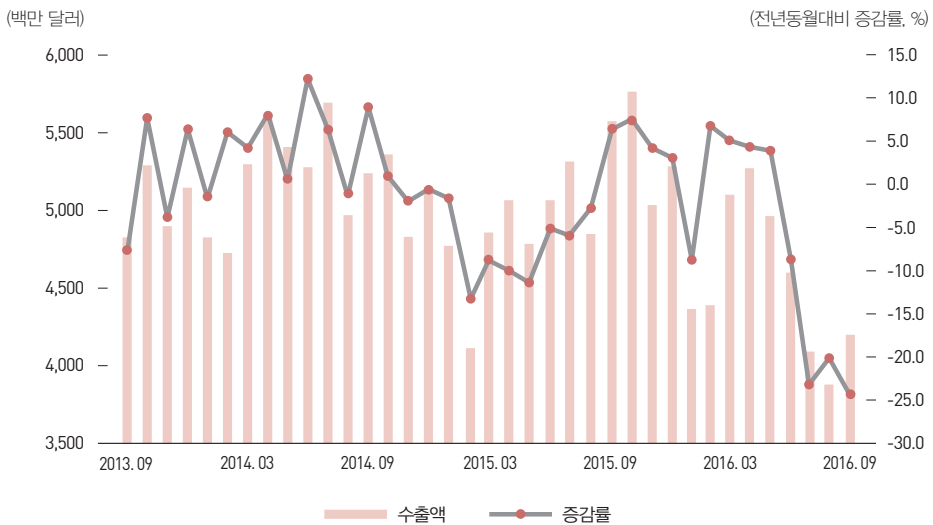
수출입

서울의 9월 수출과 수입은 모두 전년 동월보다 감소

- 서울의 수출은 42.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4.3% 감소하였고, 수입은 109.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.5% 감소
- 전국의 수출은 408.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.9% 감소하였고, 수입은 339.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.7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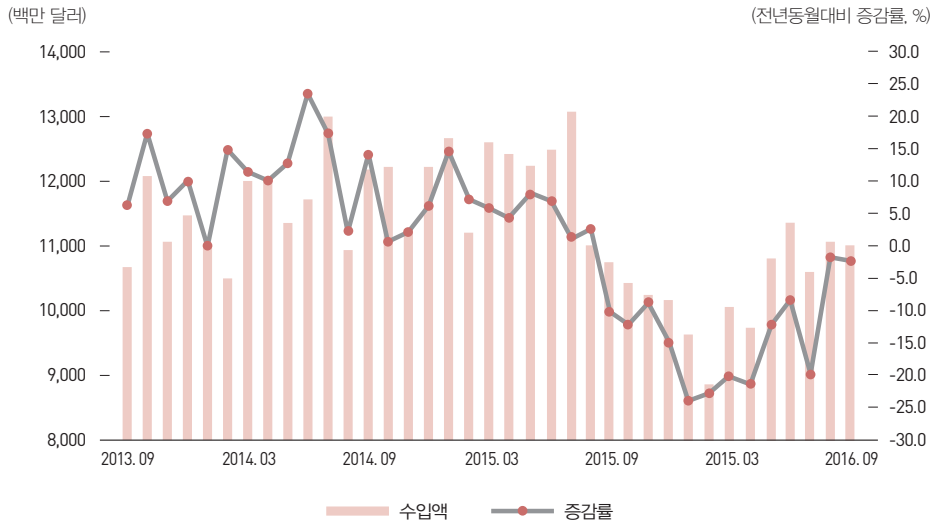
서울의 9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, 수입 1순위는 원유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(467백만 달러)이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반도체, 합성수지, 비누·치약 및 화장품, 고무제품 순임.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월 대비 26.3% 증가한 반면, 합성수지, 고무제품 수출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원유(1,092백만 달러)가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의류, 자동차, 반도체, 석유제품 순임. 원유 수입이 전월 대비 43.6% 증가해 수입 1순위 품목을 기록했으며, 전월 1순위 품목이었던 자동차 수입은 전월 대비 6.4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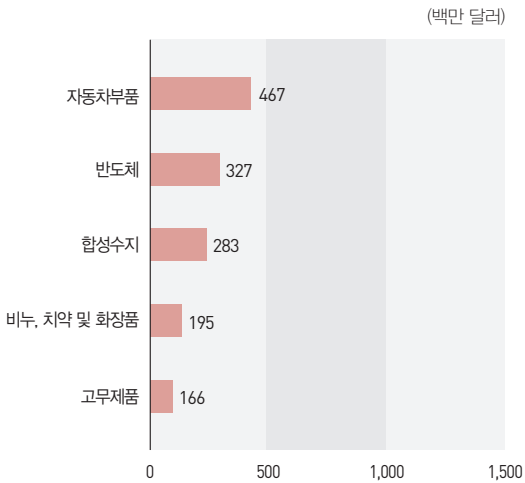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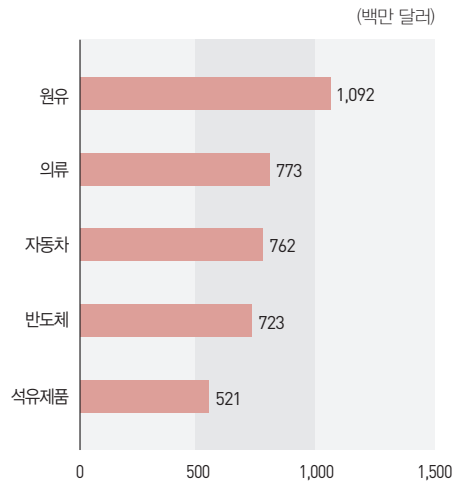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



자료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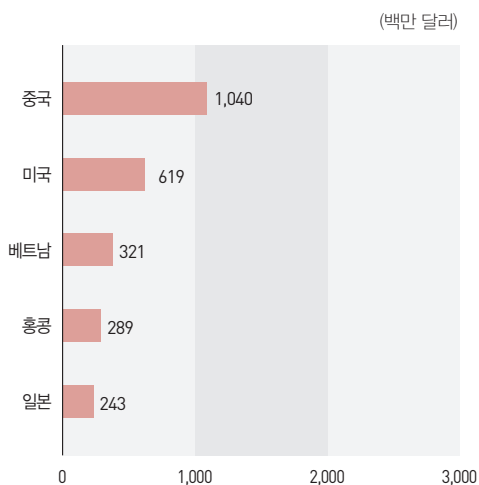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9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

〈그림〉 9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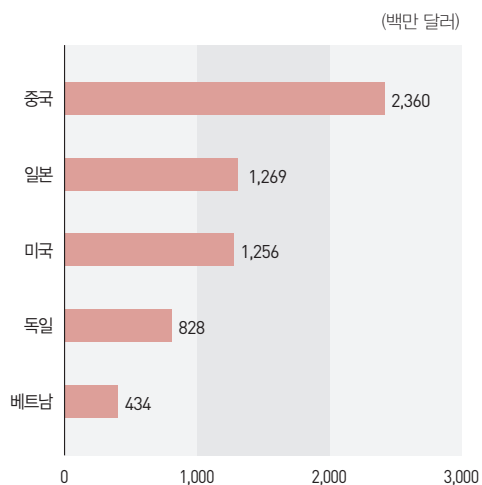
서울의 9월 수출·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(1,040백만 달러)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홍콩, 일본 순임. 중국 수출은 전월 대비 18.8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16.4% 감소
- 주요 상대국 수출이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미국과 베트남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.4%, 20.3% 감소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(2,360백만 달러)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베트남 순임. 중국 수입은 전월 대비 0.1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3.3% 감소
- 지난달보다 미국 수입은 줄고(-6.3%), 일본 수입이 늘어(10.1%) 일본 수입 비중이 확대됐고, 베트남 수입 확대(7.1%)로 베트남이 주요 수입상대국에 진입


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9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

〈그림〉 9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자료출처
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9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9월 서울시 고용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9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』
- 국민은행, 『2016년 9월 월간 KB주택가격동향』
- 대한민국 법원, 법원통계월보, 『<http://www.scourt.go.kr>』
- 부동산114, 『2016년 9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』
- 부동산114, 『2016년 9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전세가격』
- 서울신용보증재단, 『2016년 9월 신용보증동향』
- 서울특별시, 서울부동산정보광장, 『<http://land.seoul.go.kr/land>』
- 중소기업청, 『2016년 9월 신설법인동향』
- 통계청, 통계정보시스템, 『<http://kosis.kr>』
- 한국감정원, 『2016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』
- 한국무역협회, 무역정보네트워크, 『<http://stat.kita.net>』
-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, 『<http://ecos.bok.or.kr>』